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1>

JCCT 2021-5-1

##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과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pathy Ability and Sense of Humor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박서현\*, 김미영\*\*

Park Seo Hyun\*, Kim Mi Young\*\*

**요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와 G시의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정신간호사 2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59 \pm 0.43$ 점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유머감각( $r=.53$ ,  $p<.001$ ), 공감능력( $r=.39$ ,  $p<.001$ )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머감각, 공감능력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유머감각과 공감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조절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study was to examine the degree and the relationship among empathy ability, sense of humor and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and to understand factors which influence on communication 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219 psychiatric nurses in B and G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communication ability in psychiatric nurses was  $3.59 \pm 0.43$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bility with respect to sense of humor( $r=.53$ ,  $p<.001$ ), and also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empathy ability( $r=.39$ ,  $p<.001$ ),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4.4%( $F=29.56$ ,  $p<.001$ ).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higher sense of humor and empathy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the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ly,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sense of humor and empathy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should be developed and utilized

**Key words** : empathy ability, sense of humor, communication ability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정희원, 한사랑 병원 간호부장(제1저자)

\*\*정희원,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월 2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31일

Received: January 2, 2021 / Revised: March 15, 2021

Accepted: March 31, 2021

\*Corresponding Author: minocin@hanmail.net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Korea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달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1]. 미국간호교육연맹위원회(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 ; NLNAC)에서는 간호대학의 의사소통기술능력을 인증기준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 교육의 학습성과에서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필수 요구사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정신간호사는 관계형성이 어려운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서 및 행동을 중재함에 있어 대상자와 지속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자신을 치료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이 강조되고 있다[2].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신간호수행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3].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정신간호수행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필수적인 역량이다.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할수록 정신간호수행에서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부정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게 된다[3]. 즉, 정신간호사는 정신간호수행에서 대상자와 치료적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간호사 자신의 자존심저하와 자기 가치 절하인 답답함[3]으로 연결되어 이직의도가 높아진다[4].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5]. 즉,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입장이 되어 감정을 정확히 지각하여 대상자를 지지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5].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은 대상자의 감정과 한계를 알고 그들의 정서적 상태, 비언어적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심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6]. 또한 대상자는 정신간호사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며[6], 대상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치료과정의 주체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사의 공감능력은 통해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2]하며,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준다[6].

유머는 간호사와 대상자의 긍정적인 측면의 치료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감시키며, 건강교육의 학습효과를 증진시킨다[7]. 유머감각은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증가시킨다[8]. 정신간호사의 유머감각은 치료적 관계를 형성[9]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유머감각이 정신과 대상자에게는 정신적인 자극으로부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10], 이에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의 관련요인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병원 간호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연구[6]에서는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을 확인하였다.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고, 유머감각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신과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올바르게 긍정적인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과에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관계성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와 G시 10개의 정신의료기관에 허락을 구하고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정신간호사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0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1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일에서 9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여 225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219부(95.2%)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IRB No. 18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4. 연구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공감능력 28문항, 유머감각 20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사용은 저자에게 E-mail을 통하여 도구 사용에 대한 사전 허락을 받았다.

#### 1) 공감능력

대상자의 공감능력 측정은 Davis [5]의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Park [11]이 변안한 한글판 IRI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인지적 요소 14문항과 정서적 요소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 3, 4, 7, 12, 13, 14, 15, 18, 19는 역 문항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환산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5]의 Cronbach's  $\alpha=.78$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78$ 이었다 .

#### 2) 유머감각

대상자의 유머감각 측정은 Thorson과 Powell [8]이

개발하고 Lee와 Choi [12]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수정한 유머감각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유머 생성 9문항과 유머에 대한 선호도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문항 3, 7, 9, 11, 16은 역 문항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환산하였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8]의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3)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측정은 Hur [13]가 개발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13]의 Cronbach's  $\alpha=.72$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86명(84.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0대'가 85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27명(58.0%), 종교는 '없음'이 123명(56.2%), 교육수준은 '학사'가 113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 '10년 이상'이 101명(46.1%), 정신과 근무경력 은 '1-3년 미만'이 52명(13.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86	84.9
	Male	33	15.1
Age (year)	<30	85	38.8
	30-39	57	26.0
	40-49	38	17.4
	>50	39	17.8
Marital status	Unmarried	127	58.0
	Married	92	42.0
Religion	No	123	56.2
	Yes	96	43.8
Education Level	College	97	44.3
	Bachelor	113	51.6
	≥Master	9	4.1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89	40.6
	5-10	29	13.3
	>10	101	46.1
Psychiatric ward clinical career (year)	<1	35	16.0
	1-3	52	23.7
	3-5	34	15.5
	5-10	29	13.3
	>10	69	31.5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3.03±.30점, 유머감각은 3.11±.41점, 의사소통능력은 3.59±.4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표 2.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mpathy ability, Sense of humor, Communication ability (N=219)

Variable	M±SD	Min	Max
Empathy ability	3.03±.30	2.21	3.89
Sense of humor	3.11±.41	2.10	4.60
Communication ability	3.59±.43	2.47	4.9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상태(t=4.46, p=.036), 종교(t=4.02, p=.04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3.61±.41	-1.57 (.211)
	Male	3.51±.51	
Age (year)	<20	3.59±.43	1.15 (.331)
	30-39	3.64±.38	
	40-49	3.49±.42	
	>50	3.63±.51	
Marital status	Unmarried	3.66±.44	4.46 (.036)
	Married		
Religion	No	3.54±.41	-4.02 (.046)
	Yes	3.66±.45	
Education Level	College	3.53±.46	2.01 (.137)
	Bachelor	3.63±.40	
	≥Master	3.77±.31	
Total clinical career (year)	<5	3.53±.46	2.01 (.137)
	5-10	3.63±.40	
	>10	3.77±.31	
Psychiatric ward clinical career (year)	<1	3.70±.42	1.39 (.237)
	1-3	3.58±.45	
	3-5	3.56±.45	
	5-10	3.46±.38	
	>10	3.62±.42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과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r=.39, p<.001), 유머감각(r=.53, p<.001)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표 4.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 의사소통능력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mpathy ability, Sense of humor, Communication ability (N=219)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Sense of humor	Communication ability
	r (p)		
Empathy ability	1		
Sense of humor	0.31 (<.001)	1	
Communication ability	0.39 (<.001)	-.053 (<.001)	1

5.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감능력, 유머감각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 종교를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77-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0-1.29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2.16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Cook의 거리가 1보다 작아 극단값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29.56$ ,  $p<.001$ ), 수정된 결정계수( $R^2$ )은 .344로 설명력은 34.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머감각( $\beta=.45$ ,  $p<.001$ ), 공감능력( $\beta=.24$ ,  $p<.001$ )으로 나타났다(Table 5).

표 5.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 Affected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N=219)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1.04	.26		3.98	<.001
Empathy ability	.34	.08	.24	4.12	<.00
Sense of humor	.47	.06	.45	7.80	<.00
Marital status	.05	.05	.06	.99	.324
Religion	.09	.05	.10	1.75	.081
Adj. $R^2 = .344$ $F=29.56$ ( $p<.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과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은  $3.59 \pm .43$ 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에서는 결혼상태(기혼), 종교(있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3.46점[14]에 비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병원의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정신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는 의사소통 능력이 간호중재에서 중요함과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신간호에서 중요한 요소인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중재가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이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간호수행으로 신뢰를 경험한다[3]. 즉, 의사소통능력은 정신간호사의 다양한 업무에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업무의 경중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업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는 정신간호업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일반적 특성 중 결혼 상태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간호사 대상[15]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은 가족원들과 가족 간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15]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대인관계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결혼은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변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혼보다는 미혼인 간호사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난 간호사 대상[16]의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종교는 현재의 자신과 환경을 판단하고 현실 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할 수 있다[17]. 이런 종교를 단순히 신앙행위의 상징으로 축소 정의할 수 있지만, 종교적 활동의 증가와 자신의 문제 성찰[17]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의 결과 자신에 대한 태도나 수용은 의사소통능력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교는 자기이해의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에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공감능력, 유머감각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을 높게 나타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6].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은 치료적 도구로 정신간호사의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6]. 간호학에서 공감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무 중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간을 많이 할애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19]. 그러므로 정신간호사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공감과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유머감각은 비교할 선행연구가 없으나, 간호사의 유머는 치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20], Kim 등[7]은 실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머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는 유머를 사용하기 전에 대상자와의 신뢰관계와 대상자의 감정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 대상자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머감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머감각, 공감능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머감각은 정신간호사와 대상자의 의사소통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친숙함을 느끼게 하며, 치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9]. 유머감각은 정신간호사와 대상자의 신뢰관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머감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18]은 의사소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사가 대상자의 느낌을 공유하고 그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높으면, 대상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며 공유하는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6].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한 이해와 공유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 간호사[1,4,6,13]대상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사와 대상자의 상호관계가 간호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신간호사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임이 중요하다. 이는 정신간호 실무에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공감능력이 필요함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신간호사의 교육계획 수립에 근거가 될 것이다.

간호실무 측면에서 정신간호사로 첫 출발하는 신규 간호사에게 대상자와 신뢰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간호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간호사의 자기개발 분야에 유머감각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찰 프로그램에 대한 간호부 및 병원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첫째,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유머감각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강화시킨다면 다양한 심리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의 증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정신의료기관에 임상현장에서 유용한 의사소통능력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에는 간호사 개인의 측면이 아닌 병원 측에서 간호사의 공감능력, 유머감각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2개 지역 10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측정 변수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 등으로 보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에 일부 요소로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한시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다양한 근무특

성 등의 요인을 반영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Lee MS. Conversation analysis for improving nursing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7;37(5), 772-780.
- [2] Kwon MG, Kim YH.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empowerment among psycholog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3):2038-2046. <https://doi.org/10.5762/KAIS.2015.16.3.2038>
- [3] Kim MY, Ha SJ, Jun SS. The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as novice psychiatric nurses In hospital. *Global Health & Nursing*. 2018;8 (1), 17-28.
- [4] Kang HS, Kim, YY.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n turnover inten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JKAIS)*, (2016);7(1):141-151. DOI : 10.5762/KAIS.2016.17.1.141
- [5]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980;10(3): 85-104.
- [6] Oh EJ, Lee MH, Ko SH.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on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6;25(4): 283-293.
- [7] Kim MS, Jun JM. A study on the nurses' appreciation and use of humor.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2004;16(3), 366-377.
- [8] Thorson JA, Powell FC. Deveolpment and validation of an multidimensionalsenseofhumor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3;49:13-23
- [9] Seo JM, Na HJ. A Content Analysis of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s' Experience of Using Humor.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5;24(2): 93-106.
- [10] Choi JY, Hwang IY, Park YM. Relationship among sense of humor, self-esteem, and performance in nurs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012; 21(1),10-17.
- [11] Park SH. *Empat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1997. 19 p
- [12] Lee JS, Choi AI.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6;13(6):79-100.
- [13]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J Korean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 [14] Lee HS, Kim JK.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typ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0;16(4):488-496.
- [15] Lee YH. *Self-leadership, communication skill performance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es*. Seoul: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6 p78.
- [16] Kim SH, Lee MA.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4;14(3): 332-341.
- [17] Blazer DG, Meador KG. The role of spirituality in health aging. Arlington. In: Depp CA, Jeste DV, editors. *Successful cognitive and emotional aging*. Englan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09. pp. 73-86.
- [18] Park YS, Im SB, Kim HS.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9;18(3):361-368.
- [19] Jo HK, Kim SH.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perceived ethical climate of psychiatric nurses working in the national mental hospital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7;26(2):204-215. <http://dx.doi.org/10.12934/jkpmhn.2017.26.2.204>
- [20] Haydon G, van der Riet P. A narrative inquiry: How do nurses respond to patients' use of humour?. *Contemporary Nurse*, 2014;46(2): 197-205. doi: 10.5172/conu.2014.46.2.197.